



항일여성

11호 | 2022년 3월 발간



강주룡 (황재형작)

노동여성의 새벽을 일깨우다 강주룡 (1901-1932)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신영숙

을밀대의 고공 투쟁
강주룡의 외침이
평양의 새벽을 깨웠다

1931년 5월 16일 시작된
평양 평원고무공장
여공들의 단식 파업
2300여명의 고무직공
임금 삭감 반대
한사코 동맹 파업

일경과 기업주에 맞서
군세게 나섰으나
요지부동의 그들 앞에
장기간 파업 투쟁
여공들은 지쳐갔다

싸늘하게 식어버려
모른 체하는
사회에 알리고자
대동강 을밀대 누각에
밤새 광목을 찢어
밧줄을 만들고
감아올려
줄타기하듯
12미터 지붕에 올라
목이 터져라
간절한 외침으로

동트는 새벽을
아침을 갈랐다

간혀서도
단식 투쟁으로
항의하고 또 하다
죽도록 싸울 각오
다지고 또 다졌다
관철되지 않는 요구
죽어도 좋겠노라
처절한 투쟁도 무색하게

7월 초
파업은 끝나고
주모자로 다시 구속
참혹한 고문 끝에
병보석도 간곳없이
후유증으로
그해 8월 13일
평양 빈민굴에서
한 맺힌
이생을 떠났다

1901년
평북 강계에서
태어난 강주룡
가난에 쫓겨
서간도 이주한 뒤

20살에 5살 연하
최전빈과 혼인
사랑하였다

항일 투쟁하던
남편이 일찍이 병사
'남편 죽인 년'으로
맥없이 쫓겨나
친정 찾아 귀국

가족 돌보는 여공
남자 이상의
의식과 정신으로
투철한 삶을 살다
이른바 최초의
고공 농성 투쟁!

한 많은 대동강의
새벽 햇살에
이슬지듯
사라져 갔다
31세 나이도 가없이

노동여성 투쟁의
총총한 빛나는 별로
2007년 애족장 받아
훗날을 밝히고
또 밝히려

목차

- 02 권두시 노동여성의 새벽을 일깨우다 : 강주룡
-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신 영 숙
- 04 인사말 이사장 김희선
- 06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오늘 그들 여기에>
2021 문화예술 공모전
 -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공모전 수상작
 - 제4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랩대회 수상작
 -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독백대회 수상작
 - 제1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UCC 공모전 수상작
 - 제1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일러스트·웹툰 공모전 수상작
 - 제1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공공조형물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 공모전 참가자들이 남긴 이야기들
- 22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학술심포지엄
- <민족·여성 해방을 외치며 세계를 누빈 한국 여성들>
- 24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유적지 온라인 답사
- 여성독립운동가를 찾아서 : 윤희순, 박차정, 이효정
- [소감문] 낯설고 감동적인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
- 30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전용 앱
- 스마트폰에서도 여성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편하게!
- [소감문]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앱 개발을 지원하며
- 32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 2021 6.25 추모제, 이북 출신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전
- 2022 국회아트갤러리 3·1 혁명 기념 작품전
- [소감문] 초상화 앞에서 들려오는 그날의 함성
- 35 함께하는 항일여성
- 30주년 수요시위 참가
- 김연경 여성 팬모임의 후원금 전달
- 36 서훈 추서자 명단
- 38 2022년도 사업 계획
- 39 회원명단

발행일 2022년 3월 통권 11호 발행인 김희선 디자인 인쇄 디자인포인트

발행처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사숙재회관 402호

- 후원안내 / 회원가입 :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01-0230-6110-11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가입문의 : 전화 02)924-0660 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

인 사 말



이사장 김희선

어느덧 봄날로 향해가고 있는 삼월 초순입니다. 얼었던 물이 녹아 흐르고 움츠렸던 개구리가 펄쩍 뛰어 오릅니다. 우리 항일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보다 우리 회원들과 함께 하는 길에 있습니다.

2014년 우리 사업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8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 광장에 모인 촛불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속에서 우리 사업회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잊혀졌던 여성의 역사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 역사에 비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과 미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와 미래와 긴밀히 조응하며 서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지금 이 시대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길을 내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지난 8년간 우리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이의 호응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 우리 단체가 출범할 때만 해도,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아는 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독립운동가가 상당히 발굴되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고, 영화·연극·만화·드라마 등 여러 콘텐츠에서도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아직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전체 독립유공자의 3.2%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문화예술 공모전을 마무리하며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아직도 여성독립운동가라면 오로지 유관순 열사 한 분만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명이 대표할 수 있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름 없이 잊혀져 간 분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삶이 지금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억압에 맞서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낸 여성들을 기억하고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항일여성 11호는 지난 2021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 속에서 시민참여 행사는 불가피하게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유튜브채널 항일여성TV(www.youtube.com/c/항일여성TV)를 통해 영상으로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2021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문화예술 공모전 수상작들을 현재 항일여성TV를 통해 볼 수 있으며, zoom의 방식으로 치러진 학술심포지엄 <민족 여성 해방을 위해 세계를 누빈 한국여성들>도 항일여성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던 항일여성 유적지 답사도 올해는 온라인 답사로 바꾸어, 최초의 여성의병장 윤희순, 의열단원 박차정, 항일노동운동가 이효정 세 분의 유적지를 영상 속에서 따라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년과 같이 관람객들이 직접 전시회장에 오가는 방식의 초상화 전시회는 개최하지 못했으나 대신 본회 전용 어플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초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앱스토어에서 '항일여성'으로 검색하여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들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었습니다.

비대면 시국 속에서 영상과 어플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던 지난해의 도전에 더해, 올해는 적극적인 회원 확대를 도모하며 회원들과의 스킨십을 좀 더 강화하려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우선이며, 사람이 희망입니다. 창립 때부터 함께 애써주신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신영숙 소장님 외 여러 이사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더합니다. 그리고 미래세대들에게 건네줄 역사를 만드는 데 함께 해오신 많은 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민단체가 그러하듯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의 활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성과는 모두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민족 영물 호랑이처럼 빛나는 눈으로 맹진하겠습니다.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오늘 그들 여기에

2021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문화예술공모전



2021 문화예술 공모전 포스터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오늘 그들 여기에> 문화예술 공모전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되새기려는 다양한 세대의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묻혀있던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알림으로써 자랑스런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던 본회의 공모전에 참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캐리커처 그리기, 100인 합창단 등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던 관계로 대신 2021 문화예술 공모전의 범위를 예년보다 넓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초상화, 랩대회, 독백대회 외에도 UCC(동영상), 일러스트와 웹툰, 공공디자인 조형물 등 3개 부문을 신설하여 총 6개 부문에서 진행하였고, 각계에 종사 중인 심사위원들이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적 요소, 주제의식을 모두 고려해 공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지원하였으며, 수상자들도 각계각층의 다

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기념식 및 문화예술 공모전 시상식 역시 방역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행사가 아닌 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및 각 분야 별 수상작과 심사평을 함께 묶은 편집영상도 후속 제작하여 유튜브채널 항일여성TV(www.youtube.com/c/항일여성TV)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또한, 항일여성TV의 재생목록 '[2021] 문화예술공모전 수상작'에서는 편집되지 않은 수상작 전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열릴 제8회 추모문화제<오늘 그들 여기에>와 문화예술공모전에도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8.15 기념식 및 문화예술 공모전 시상식 영상 섬네일

* 항일여성TV : www.youtube.com/c/항일여성TV

| 수상자 명단 (입선 부문 제외) |

분야	구분	수상자
제4회 랩 대회	항일여성의병장상 (대상)	안덕수
	항일애국부인회상 (최우수상)	안승훈, 김영빈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우수상)	유상현
제3회 독백대회	항일여성의병장상 (대상)	수상자 없음
	항일애국부인회상 (최우수상)	김단아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우수상)	김효진, 장서현
제2회 초상화 공모전	항일여성의병장상 (대상)	박민지
	항일애국부인회상 (최우수상)	황유윤, 이유진,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우수상)	김도희, 서희, 손민지

분야	구분	수상자
제1회 UCC 공모전	항일여성의병장상 (대상)	최한비
	항일애국부인회상 (최우수상)	수상자 없음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우수상)	이백순, 남서정, 오상우
제1회 일러스트/웹툰 공모전	항일여성의병장상 (대상)	김소민, 이수민
	항일애국부인회상 (최우수상)	김종수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우수상)	최미성
제1회 공공조형물 디자인 공모전 (4)	항일여성의병장상 (대상)	수상자 없음
	항일애국부인회상 (최우수상)	수상자 없음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우수상)	이민희, 이정서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공모전 수상작



대상 항일여성의병장상 박민지

작품 소개

“화면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눈빛은 분노를 표하는 것 같기도, 꺾어진 기개를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강렬한 눈빛과 표정이 항일정신을 누구보다 잘 나타내는 것 같아 그 모습을 유화로 그려내 보았습니다.”

| 이경선 지사(1914~?) |

독서회 조직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항일운동과 노동운동에 전념했다. 다섯 번이나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내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훌륭한 연설가로도 명망을 떨쳤다.



최우수상 항일애국부인회상 황유윤

작품 소개

“항일 운동가들의 눈빛은 오늘날 학생들과는 다르게 무게감이 있고 강렬하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시기에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굳은 의지와 타는 눈빛이 흑백 사진을 뚫고 느껴졌다. 생전에 마음껏 누리지 못했을 그 나이대의 풋풋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도 해봤지만 아무래도 그들의 눈빛과 무게감을 중점으로 표현하는 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 김성재 지사(1905~?) |

배화여학교 재학 중 학교 뒤편 언덕과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소리높여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공모전 수상작



최우수상 항일애국부인회상 이 유 진

작품 소개

“우리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남성 독립운동가들은 익히 많이 알고 있지만 여성 독립운동가의 성함이나 업적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번 작업을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된 왕중순 독립운동가는 3월 1일 다섯 명의 여성이 함께 배화학교 기숙사 뒤편과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이 일로 체포되었다. 이 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 하기에 초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알게 되길 바란다.”

| 왕중순 지사(1905~1994) |

배화여학교 1학년이던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서울 무교동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했으며 1920년 독립 만세운동 1주기 때 배화여학교 뒤편 언덕에서 만세를 부르다 24명과 함께 체포됐다.



우수상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손 민 지

작품 소개

“지사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 느껴짐과 동시에 힘있는 눈빛과 입매를 나타내려 노력했다.”

| 김경화 지사(1901~?) |

1920년 배화여학교 재학 중 박양순 등 동료 학생들과 함께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만세시위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하였다. 동료 23명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공모전 수상작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김도희**

작품 소개

“대동단의 박정선 열사의 활동에 대해선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독립운동으로 인해 무수한 청춘남녀가 옥중에서 고생하는데 본인의 죽을 자리를 찾지 못해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작은 기사 한 줄에서 그의 강인한 정신과 지조, 애국심을 엿보았습니다.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 속 흐린 화질 속에서도 두려움일랑 보이지 않고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나라의 청년들을 안타까워하며 행동으로써 보여주었던 그 시대의 어른의 모습과 그 어느 곳에서도 잃지 않았던 굳건하고 단호한 의지와 온화한 마음을 초상화에 담고자 했습니다.”

| 박정선 지사(1874~?) |

1919년 비밀결사조직 대동단의 일원으로 이른바 제2차 독립선언 계획에 따라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항일여성청년독립단상 **서희**

작품 소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신 지은원 지사님을 기억하고자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 지은원 지사(1901~?) |

1919년 3월 1일 김수희 등 학우들과 배화여학교 기숙사 뒤편 언덕과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소리높여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제4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랩대회 수상작



항일여성의병장상 안 덕 수

작품 소개

"1절에서 김경화 열사님의 일대기를, 2절에서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를 향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가사가 많은 분의 마음에 닿으면 좋겠습니다."

[1절]

출생은 1901년 여름 강원도에
김씨 성을 한 아이가 태어나
어른을 공경하고 화합하라는 뜻에 받은
어여쁜 이름은 경화라 하네
시간은 가네 그녀는 학교에 가게되고
이후 3.1운동이 열리게 되네
하나 그녀는 참가치 못해
이유는 학생을 걱정한 선생의 마음
하지만 그 역시 분노한 열사를 막지 못했다
1920년 딱 1년이 지난 후
시간이 지나 후회하지 않기위해
3.1 운동 1주년에 참가해
한창 꽃다운 때에 무궁화 꽃망울을
가슴에 벤 채 울음 그리고 올린 두손
대한 독립 만세 수없이 외친 탓에
쉬어버린 목을 기억해 열사 김경화

열사 김경화 열사 김화순 열사 김성재
열사 노순경 열사 유관순 열사 차경신
부르지 못한 분들에게도 바래 안녕
열사 윤희순 열사 김계석 열사 윤경옥
열사 심계월 열사 최정숙 열사 정정화

[2절]

이름이 있었네 자유가 있었네

그토록 바란 대의를 위해 바쳤네
이름은 번호로 생활은 번거로운
힘든 가시밭길조차 마다 않았네
많았기에 그녀와 뜻이 같은 이들
전부 같았기에 광복을 해내리란 믿음
그렇기에 무섭게 스며드는 두려움을
밀어낸 채 이겨낼수 있었네
아무도 몰라 수많은 이름들이
얼마나 잊혀지고 잊힌지
누구도 빠짐없이 기억해야 할
이름들에 하나하나 경의를 담아서
불러 또 불러 한명도 빠짐없이
시간이 흘러 더 흘러도 잊혀지지 않게
차마 부르지 못한 이름들에게도 묵념
부르고 불러 바래 그들의 영원한 안녕

수많은 여성 독립열사들 중
우리가 아는 분들은 손에 꼽습니다.
잊혀진 그분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열사 이병희 열사 박정선 열사 이신도
열사 지은원 열사 부춘화 열사 홍중례
열사 고수선 열사 고순호 열사 김순호
열사 신관빈 열사 박차정 열사 이신천

- 대상 수상작 가사 전문

| 김경화 지사(1901~?) |

배화여학교 재학 중 1920년 다른 동료들과 함께 3.1만세운동 1주년을 기념해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주도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항일애국부인회상 안승훈, 김영빈

작품 소개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평양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등으로 활약한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인 권기옥 지사님의 일대기를 주제로 쓴 가사입니다."

190111 바닥에서 태어나서
억압받아 꿈이 없어 땅을 기던 새여
16년 뒤 가슴 뒤게 만든 멋진 곡예비행
보고 날아보자 마음먹고 지난 8년 세월
자신의 힘으로써 날아오른 쾌거

항상 올려보던 시선에서 이젠 바닥으로 내려
그제서야 보인 커다란 족쇄 그걸 똑바로 인지할 때부터
부족하더라도 이 한 몸 불태우려 했어.

- 최우수상 수상작 가사, 부분

| 권기옥 지사(1903~1988) |

1919년 3.1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 모집, 평양청년회 여자 전도단 조직에 힘썼다. 상해로 탈출 후 한국 최초의 여자비행사로 복무했고 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유상현(20대)

작품 소개

"서정적인 멜로디를 바탕으로 가사로는 심영신 지사님의 행보와 정신을 기리면서 지사님이 후대에 남긴 불꽃을 우리도 이어 가자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때
접시 두 개 공밥덩이 창문열고 던져줄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헤이 에헤이 데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 우수상 수상작 가사, 부분

| 심영신 지사(1882~1975) |

미주 하와이에서 대한인부인회를 결성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1920년대 말 임시정부로부터 제정 부족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고 하와이에서 자금모집에 나섰으며,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후원과 대미외교 및 선전사업을 통해 독립운동에 봉사하였다.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독백대회 수상작



항일애국부인회상 김 단 아

작품 소개

"독립운동가 안경신 선생님의 의거를 둘러싼 시간의 변화, 장면의 변화를 압축적 역동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그 분의 결의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임신한 몸이라 한들 이것이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제 아이에게 독립된 나라를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배에 폭탄을 숨긴다면 오히려 발각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차역 소리)
아..배야.. 아..
어찌 불발되었던 말인가.
(일본군의 호각 소리)
가십시오!! 나는 아기가 있어 함께 가지 못합니다. 가십시오!!
가서 조국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네 이놈들!! 조선사람이 독립하여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죄냐?
일본은 나의 죄를 입증하지 못한다. 나는 무죄다!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네놈들이 죄인이지.
어찌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냐!
(아기 울음소리)
아가 아.. 아가 내 아가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차라리 나였으면 좋았을 터.
신이시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식은 병신이온데 어찌 서럽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모두 원수같이 느껴집니다.
하나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일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 대상 수상작 대사 전문

| 안경신 지사(1888~?) |

동료들과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했고 많은 군자금을 거둬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등 활약했다. 국제적 여론을 이용하고자 평남경찰국 청사, 평양시청, 평양경찰국 세 곳에 투탄했으나 두 곳은 도화선이 젖어 안타깝게도 불발했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의 옥고를 치렀다.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김 효 진

작품 소개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여자비행사인 권기옥 지사님을 연기하였습니다. 비행사를 꿈꾸셨던 시절의 지사님과 마침내 비행사가 되신 지사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 2년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보았을 때를 기억한다.

항공학교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은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제 조국을 찾기 위해 비행을 배우고자 합니다. (중략)

부디 한번만 허락해주십시오.

비행사만 된다면 비행기만 있다면 폭탄을 싣고 일본으로 날아가 조선총독부와 일황궁을 폭파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부디 이 다짐이 다짐으로 끝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학교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 우수상 수상작 대사, 부분

| 권기옥 지사(1903~1988) |

1919년 3.1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 모집, 평양청년회 여자 전도단 조직에 힘썼다. 상해로 탈출 후 한국 최초의 여자비행사로 복무했고 임시정부 직할 한국애국부인회를 조직했다.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장 서 영

작품 소개

"최초의 여성 의열단원 현계옥 지사님을 모티브로 연기했습니다.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나를 애인 혹은 한 여자로서만 보지 말고 같은 동지로 생각해 달라"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본인의 각오와는 다르게 홍일점, 독립운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조력자로 그치기에는 상해를 오가며 비밀공작 활동을 수행하고, 변장술에 능숙해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숨기며 암살을 위한 폭탄을 운반하는 등 이분의 업적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계옥 지사님의 독백을 연기하여 이분의 업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김원봉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제의 밀정이 아닙니다. 모두들 천한 기생이라 하지만

나라가 이런데 어찌 가만히 앉아 술을 따르고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의열단을 만들어 함께 싸울 동지를 구하신다 들었습니다.

(중략) 저 말도 탈 줄 압니다. 총을 쏘라면 쏘고 폭탄을 던지라면 던지겠습니다.

저도 기생이기 전에 대한의 국민입니다.

기생은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조차 없단 말입니까

제 비석에 이름 석 자 새겨 줄 이 없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 우수상 수상작 대사, 부분

| 현계옥 지사(1897~?) |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해 한국과 상해를 오가며 비밀공작 활동을 수행하고, 변장술에도 능숙해 폭탄을 운반하는 등의 업적을 세웠다.

제1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UCC 공모전 수상작



대상

항일여성의병장상 최한비 “특별한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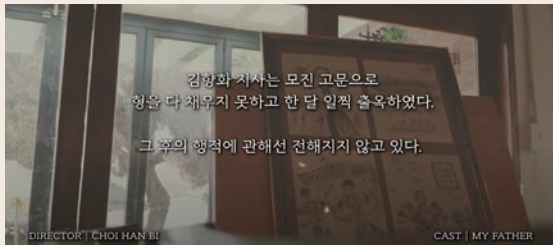
특별한 의뢰



어린 소녀들이었지만



이 나라의 역사였다.



김향화 지사는 모친 고문으로
형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 달 일찍 출옥하였다.
그 후의 행적에 관해선 전해지지 않고 있다.

DIRECTOR | CHOI HAN BI

CAST | MY FATHER

작품 소개

UCC부문 수상작 중 유일한 극영화 작품으로, 수상자의 아버지가 연기한 주인공은 사람의 인생을 그리는 화가다. 어느 날 1950년대에서 보낸 듯한 편지를 받고, 의뢰 내용대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독립운동가 김향화 지사의 인생에 감동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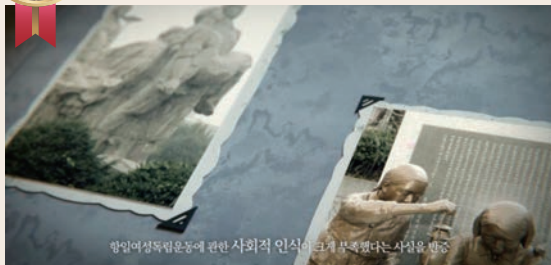
“그녀의 인생은 단순한 개인의 생(生)이 아니었다. 나의 나라를 있게 한, 그래서 나의 오늘을 있게 한 이 나라의 역사였다.”
- 작중 주인공의 나레이션

※ 김향화 지사[1897~?]: 1919년 3월 29일 수원에서 기생 30여 명의 만세운동을 주도해 옥고를 치렀다.



우수상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남서정 “항일여성독립운동가 -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항일여성독립운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은



또 중일 시대, 남한, 도쿄 세 곳에서 아홉관급장급관을 운영했다.
일시정부는 매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활동을 장려했다.
부인들은 가정과 교도학교에서 한글, 국사, 풍요 등을 가르치며
지니들에게 민족의식 계몽에 노력했다.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온갖 생활하던 원로들을 돌보는 일
또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몫이었다.
“아이가 훗날 이국을 떠돌면서 생활했던 이유를 묻는다면,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는 짧은 한마디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
- 독립운동가 부부 육아일기 ‘제1회 일기’ 중에서

작품 소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잊혀진 역사를 다시 조명하고 그들과 그들 활동의 역사적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싶었다. 진중한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는 듯한 효과를 사용해 제작하였다.”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오 상 우

“모두에게 용기를”



작품 소개

"항일투쟁 관련 유적지를 방문할 때마다 여성독립운동가의 유적과 기록이 적고 보존도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다. 많이 가려지거나 덜 드러났어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었다."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이 백 순

“창공에서 독립을 외치다”



작품 소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에는 권기옥 지사를 포함한 다른 수많은 여성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

제1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일러스트·웹툰 공모전 수상작



항일여성의병장상 이 수 민

“독립의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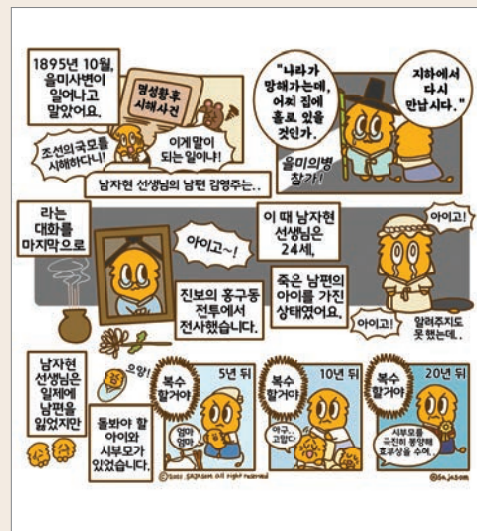
작품 소개

“‘강철날개’라 불리우던 권기옥 지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비행기를 주축으로 권기옥 지사가 참여하신 3.1운동의 태극기, 한국의 자랑스러운 산맥들을 단순화하여 배치했습니다. 바닥에 솟은 풀은 그녀가 걸어온 어려운 길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에 반해 해가 솟는 새벽을 표현하는 핑크색으로 희망을 심었습니다. 모두가 역사를 잊지 않음으로써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일여성의병장상 김 소 민

“호데데!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 남자현 지사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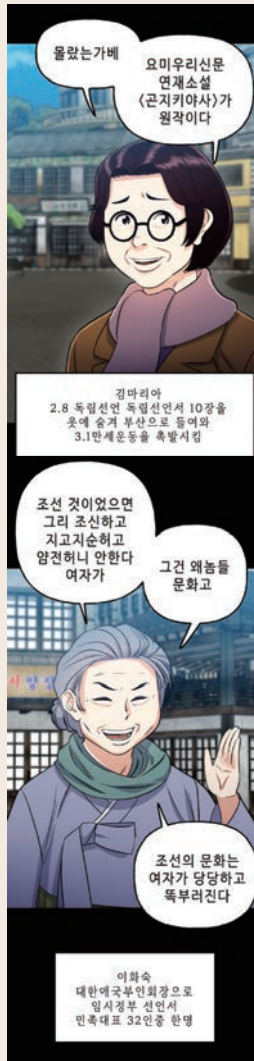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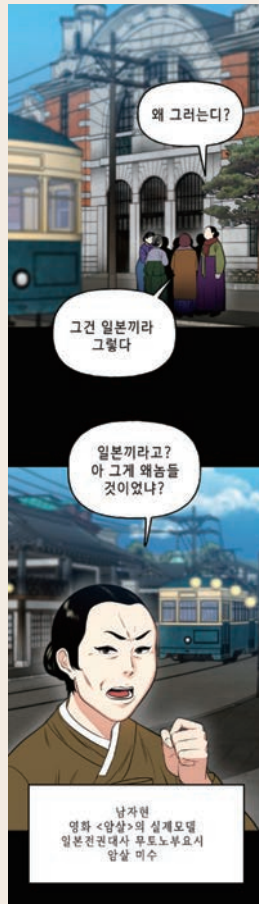
‘후략 (본회 홈페이지에서 웹툰 전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소개

“남자현 선생님은 제가 웹툰을 준비하며 공부한 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셨습니다. (중략) 저는 웹툰을 통해 일제에 잡힌 뒤 고문당하는 처절하고 슬픈 모습이 아니라 활동기의 당당하고 호탕한 모습의 여성독립운동가를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분들의 이름을 알릴 때 끔찍한 고초를 겪으신 일이나 고문을 당하셨다는 사실만 주목되기보다, 그분들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과 행동을 했는지 더 조명되었으면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일애국부인회상 김 중 수



'후략 (본회 홈페이지에서 웹툰
전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성의 새벽”

작품 소개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가 많이 있었으며
그들 역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하였음을 작은 상황극을 통해 묘사하였다.”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최 미 성

무력투쟁에 목숨 바치다

〈독립투사 안경신〉

동주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 방학숙제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알아보는 건데.

왜? 그게 뭐가 어려워?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

유관순 누나?

또?

유관순 누나?

또?

유관순 열사..

어..하하.. 유관순 누나 항복할 줄 모르는 거니?

어쩔 수가..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 여성을 조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분들이 많아-

전면에 나선 독립투쟁 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연락책, 자금모집도 하고

남편의 옥바라지부터 경찰들로부터의 감시, 경찰고, 모친 고문에 가다가 저나 암살까지.. 그녀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 중에서도 정신한 몸으로 항일 경찰부에 폭탄을 던진 여성독립운동가가 계시!

정말?

그런 분이 계시?

독립 운동가 안경신 (1888-?)

안경신 열사는 조국에서 일본을 몰아낼 방법으로, 무엇보다 유익적으로 용감할 것을 주장했어.

나는 일제강점기를 끝내기 위해 그들을 심나래로 할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곧 '무력적인 용감'이다!

3.1만세 운동 이후, 상해에 많은 항일 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는데,

안경신 열사는 보다 적극적, 직접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대한 광복군 결사대의 일원이 되었어.

마침 1920년 여름, 의회헌정 10주년을 맞아 서울에 있는 숙적(宿敵)을 제압하기 위해

광복군 결사대는 국제 사회에 양국의 싸움을 호소하고자 서울, 광명, 신의주의 폭탄거사를 계획해.

안경신 열사는 동지들과 광명역전역에 참여하고자 하였어.

하지만 동지들은 그녀를 알렸어..

단지, 그녀가 여자라서라 아니라, 당시 열사는 일본을 할 몰이였거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겐 편지를 지울 수는 없었어.

1920년 8월 3일 밤 평양 경찰서

거사 후 은신하고 있던 안경신 열사는 여동생 3월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가 돼.

여가를 남기지 12일정도 밖에 안 된 채였어..

재판부는 1심에서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어..

안경신 열사는 재판에 불복했고 항소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

'후략 (본회 홈페이지에서 웹툰 전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력투쟁에 목숨 바치다: 독립 투사 안경신 열사”

작품 소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무력투쟁에 앞장섰던 안경신 열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동주는 방학숙제로 여성독립운동을 조사하려 하지만 아는 사람이라고는 유관순 열사 뿐입니다. 고민하는 동주에게 동주의 누나는 안경신 열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 그녀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고, 훈장은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여성독립운동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립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1회 공공조형물 디자인 공모전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이 정 서

작품 소개

“이정숙 선생님은 의료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나라에 바친 인물입니다. <일어서는 간호사>의 힘겹게 일어서는 인물의 모습으로 옥고를 겪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그녀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스스로 목발을 짚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해 목발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녀와 동시대 독립 운동에 뛰어든 의료인들의 헌신을 표현하였습니다.”

| 이정숙 지사(1896~1950) |

간호사이자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다.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이 민 희

작품 소개

“당당함이 드러나보이는 포즈로 권기옥 지사님을 멋지게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열린 공간인 하늘을 손짓하는 모습으로, 즐거운 작업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 권기옥 지사(1903~1988) |

1919년 3.1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 모집, 평양청년회 여자 전도단 조직에 힘썼다. 상해로 탈출 후 한국 최초의 여자비행사로 복무했고 임시정부 직할 한국애국부인회를 조직했다.

공모전 참가자들이 남긴 이야기들

2021 문화예술 공모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보완해야 할 점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남겨달라는 마지막 질문에 참가자들이 익명으로 남긴 글 중 몇 개를 모아보았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의 이름과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여자도 독립운동을 했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관심 가지고 공부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덕분에 서울에 살지만 가보지도 않은 서대문 형무소에 가봤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미가 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독립운동가의 활약을 알리고,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존하셨던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을 떠올리며 대본을 쓰고 연기 준비를 했던 그 시간들이 참 귀중했습니다”

“솔직히 독립 운동가 중에서도 남성 운동가들이 주로 알고 있었고 여성 독립 운동가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교과서에도 근우회는 있어도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나 사진들은 없었는데 이 기회에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2021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문화예술공모전 심사위원 명단

랩

양혜경(종합 예술인), 최삼(래퍼), 슬릭(래퍼), 고광표(밴드 아이씨사이다 보컬), 아날로그소년(가수)

독백

이은주(문화교육 전문가), 이랑(퍼포먼스 기획자), 함유선(연극 기획자), 정대진(연극 배우), 심재훈(공연 프로듀서)

웹툰 / 일러

양혜경(미술가), 최하은(스튜디오 비비), 양성현(웹툰작가), 박예슬(웹툰작가), 김채은(웹툰작가), 이재교(굿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

UCC

김현숙(역사 교사), 박소현(다큐감독), 지연(영화감독), 엄하늘(영화감독), 윤용철(유튜버)

공공조형물디자인

노명희(전 신한대 교수), 이원석(조각가), 박수진(미술평론), 전영일(전영일공방), 문승영(디자인 낮잠)

초상화

양혜경(미술가), 여승렬(화가), 김형기(화가), 김병주(화가), 김최은영(미술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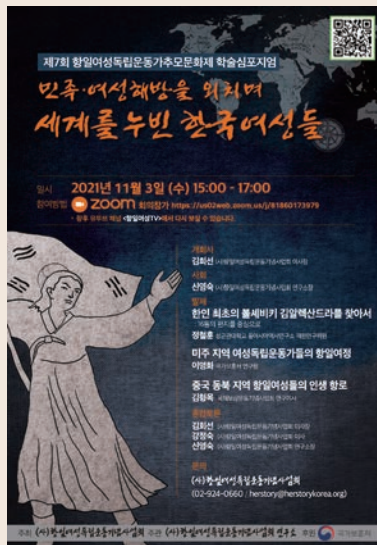


2021 문화예술 공모전 참가자들에게 보낸 기념품 '성난 소녀들' 입상

* '성난 소녀들'은 ㈜펜타브리드에서 기획·제작하여 2021년 봄 본회에 기증한 미니 입상입니다.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학술심포지엄

민족-여성 해방을 외치며 세계를 누빈 한국 여성들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학술심포지엄 <민족·여성 해방을 외치며 세계를 누빈 한국 여성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본회 신영숙 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Zoom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유튜브채널 항일여성TV에 업로드하였습니다. 학술심포지엄 자료집은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제 : 정철훈 연구위원



발제 : 이명화 연구원



발제 : 김형목 연구이사

| 일시 | 2021년 11월 3일 15:00 ~ 17:00

| 장소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 개회사 김희선((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사 회 신영숙(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 발 제

한인 최초의 불세비키 김알렉산드라를 찾아서 : 16통의 편지를 중심으로

- 정철훈(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미주 지역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항일여정

- 이명화(국가보훈처 연구원)

중국 동북 지역 항일여성들의 인생 향로

- 김형목(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연구이사)

• 종합토론

강정숙((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신영숙(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올해 학술심포지엄은 일제강점기 한국 여성의 해외 독립운동 활약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러시아, 만주, 미주 등지에서 활동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개별 주제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께 연구를 부탁드렸습니다. 기존 연구의 빈칸을 채우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비로소 한국독립운동사가 완결되고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으리라 생각합니다.”

- 학술심포지엄 개회사 중

“리인섭은 알렉산드라의 최후를 이렇게 서술했다.

내가 죽은 자리는 내가 잡을 것이다. 조선의 후진들아, 내가 금방 걸어 나온 열세 발자국은 조선 13도이다. 그 발자국마다 우리 당 수령이신 레닌에게서 받은 공산주의의 꽃씨를 심었다. 그 꽃은 모든 풍상, 가혹한 곤란을 돌파하고 만발할 것이다. 당신들은 이 꽃을 두 손에 튼튼히 쥐고 조국을 해방시키고 온 세상에 자랑하여라.

이 서술이 사형을 집행한 소총수 울리네크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될 이유는 없다. 아무르강이 흐르고 있는 한, 그 흐름은 언제나 우리 내면의 영원성을 의미한다. 서른셋의 나이에 절명한 알렉산드라의 짧은 생애는 이 지상의 삶을 싸워 이기라는 무언의 드라마이다.”

- 정철훈 <한인 최초의 볼셰비키 김알렉산드라를 찾아서> 마지막 문단

“낮선 땅에서 도전과 불굴의 정신으로 새 삶을 개척한 한인이민 디아스포라에서 여성은 이민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가족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서, 그리고 실의에 빠져 무기력하게 나날을 보내는 일부 남성들을 대신해서 여성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며 나라와 겨레를 구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미주의 여성들은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며 한인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고된 이민생활 속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었음은 눈앞의 개인적 이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높은 이상의 추구하고 민족의 장래와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전해주고자 했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비전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명화, <미주 지역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항일여정> 맺음말에서

“이들 여전사와 달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한 여성들도 있었다. 비록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독립운동가 아내·어머니·동지로서 역할에 충실하였다. [중략] 이러한 활동은 외형상으로 독립전쟁사에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결코 과소평가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돌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역사무대 주인공으로 불러내는 작업은 그래서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할 시대적인 소명이다. 온갖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보여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전승해야 한다. 역사무대에 등장하지 못한 채 뒤안길에서 ‘자기역할’에 충신했던 이들 인생행로는 중요한 정신적인 유산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 김형목, <중국 동북 지역 항일여성들의 인생 항로> 맺음말에서



종합토론 : 강정숙 이사



종합토론 : 신영숙 연구소장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유적지 온라인 답사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찾아서: 윤희순, 박차정, 이효정

본회에서 매년 진행하던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유적지 답사'를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답사 영상 제작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최초의 여성의병장 윤희순, 의열단원 박차정, 항일노동운동가 이효정, 이 세 분의 자취를 좇아 각각 춘천, 부산과 밀양, 서울을 찾았습니다. 답사 영상은 각 6~7분 가량의 길이로 유튜브 채널 항일여성TV (www.youtube.com/c/항일여성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복군 오광심 지사의 '님 찾아가는 길' 시로 시작하는 20분 가량의 통합본 영상도 함께 올려져 있어서, 세 분 유적지 답사 영상을 한 번에 감상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하나. 최초의 여성의병장 윤희순 (1860-1935)

좋은 말로 달랠 적에 너희 나라로 가거라
대장놈들아, 우리 조선 안사람이 경고한다

- 윤희순의 가사, <왜놈대장 보아라> 중에서



의암 류인석 기념관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503

류인석(1842~1915) 제천과 연해주에서 대대적인 의병 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윤희순은 류인석의 조카며느리다.



윤희순 지사 생가터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166-47. 윤희순 지사가 작사한 <안사람 의병노래> 노래비가 있다.



윤희순 지사 동상 의암공원(춘천시 수변공원길 18) 내



윤희순 지사 묘소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349-1.

둘. 총을 든 항일운동가 박차정 (1910~1944)

“조선에서 자란 소녀들이여 가슴에 피 용솟음치는 동포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을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

- 박차정 작사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 교가> 중에서



박차정 생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98번길 129-10



부산진일신여학교 기념관 부산시 동구 정공단로17번길 17
박차정이 다녔던 학교로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자 이 지역 3.1운동의 깃발을 올린 곳이다.



의열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1길 25-12 박차정이 활동했던 의열단의 독립투쟁사를 소개하고 있다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 경남 밀양시 내일동 516-23



박차정 지사 동상 부산시 금정구 체육공원로7



박차정 묘소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산 44-7

셋. 전설적인 항일노동운동가 이효정 (1913~2010)

해방의 벽찬 기쁨에 설레기도 했고
한 나라 같은 겨레가 반쪽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안고
동족상잔의 기막힌 꼴도 당했지요 (중략)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젊은이들의
세찬 함성의 소용돌이
일제가 아닌 같은 겨레의 모진 고문으로
죽은 박종철
겨레가 싸던 최루탄 파편에 죽은 이한열
아, 해방만 되면 독립만 되면
오순도순 평화의 낙원을 이룰 줄
믿었는데

- 이효정의 시 <아직 이 時代>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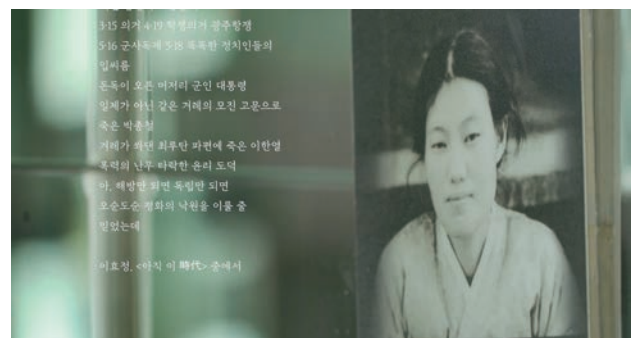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여옥사 서대문형무소 내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공간



2006년,
뒤늦게 독립유공자 인정



이효정, <아직 이 時代> 중에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유적지 온라인 답사 소감문

낮설고 감동적인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



오 지 희(웹소설가)

첫 소설을 출판사에 넘기고 다음 소설을 고민하는데 머리를 쥐어짜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헌신의 수단으로서의 배신'이라는 나름대로 근사한 주제를 정해 두긴 했는데, 숭고한 인간을, 어떤 단어나 인간관계를 통해 그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친구가 일하는 단체,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하 항일여성)에서 제작한 영상을 접했다. 영상의 제목은 <독립운동의 조연에서 독립운동·활동의 주체로>였고 '세상을 바꾼 항일 여성 운동가들의 이름을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어떤 분야에서든 여성의 활약이 쉽게 잊히는 경향은 익숙해서, 제목에서부터 공감이 일어나고 영상의 필요성이 실감되었다.

답사영상에서 묘사한 여성독립운동가 세 분, 윤희순지사, 박차정지사, 이효정지사의 삶은 낮설고도 감동적이었다. 더 알아보고 싶어져 친구에게 매년 답사 영상을 제작하는지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회원과 일반 시민들을 모집해 직접

여성독립운동가 유적지를 답사하는 일이 매년 항일여성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해 답사영상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영상에서는 남순아 진행자가 윤희순지사, 박차정지사, 이효정지사의 유적지가 있는 춘천과 부산, 밀양 서울 등을 돌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준다. 편안한 음성과 유려한 화면이 인상적이었다. KTX 내부 모습이나 진행자가 길을 걷는 장면도 사이사이 들어가 있어서 보고 있는 나도 같이 이동하는 듯 몰입되었다. 또한 세 분 지사님 삶과 그분들이 겪은 역경이 시간 순서로 설명되었고, 사진 자료가 없는 대목은 정성스러운 일러스트로 재현해 당시의 시공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에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식도 좋지만 영상을 배포하는 방식도,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고 시간과 체력이 절약된다는 장점도 있겠다고 느꼈다.

먼저 윤희순 지사는 1860년생으

로 강원도 춘천 출신이고 최초의 여성의병장이라는 명예로운 별칭도 갖고 계신다. 박차정 지사는 1910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 일신여학교에 재학 중일 때부터 조선청년동맹 및 근우회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이후 의열단원으로서 난징, 베이징, 상하이로 넘나들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마지막으로 1913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효정 지사는 전설적인 항일, 노동운동가다. 광주학생운동 때 서울에서 친구들과 만세를 부르다 옥고를 치렀고, 종연방직 총파업 지도 등 항일, 노동운동에 투신했지만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아흔셋에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영상을 보면서 나는 부끄럽게도 남성 독립운동가들과 분리해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업적을 또렷하게 떠올리기 어려웠다. 박차정 지사가 무장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직접 총칼을 들고 전선에 나섰으며, 그로 인해 서거했다는 내용을 보는 동안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분들의 헌신과 역경을 깊이 이해하는 기준이 내게 없다는 걸 말이다. 유관순 지사

를 제외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생소한 나머지, 남성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여성 독립운동가 이해의 척도로 삼고 있었다.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 맞추기 위해, 답사 영상에서도 박차정 지사의 몸 사리지 않음을 몹시 높이 평가하거나 후방지원 ‘역시’ 독립운동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성 독립운동가에 비해 여성 독립운동가가 덜 알려져 있고 덜 중요시되며 더 늦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들으면 곧바로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지만 일상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접하는 일이 좀처럼 안 일어나니 문제다. 그들이 얼마나 간과되고 있는지 책에서 수치를 찾아보니 2020년까지 인정된 독립유공자 중 여성의 비중은 2.99퍼센트에 불과하다(『여성사로 읽는 항일독립운동』(신영숙 외 저, 도서출판 항일여성, p.170)에서 재인용).

저자들은 치우친 성비의 이유를 통찰적으로 설명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정도나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런 편향된 역사해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시하고 있다.(같은 책, p.170)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대체로 후방지원 등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덜 중시되는 분야를 맡았다. 당시 그분들의 활동을 제한한 것도 성차별이 원인이며, 현재 그분들의 업적을 부당하게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차별적 분위기 탓이라.

윤희순 지사의 경우, 의병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동료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시아버지 유희석이 만류한다.

부녀자의 신분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데다 자손을 잘 키우는 일 역시 고귀한 일이라는 설득이었다. 제약과 진심어린 염려가 한데 섞인 만류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이후 윤희순은 후방 지원 위주의 ‘안사람 의병’을 조직하고 안사람 의병가의 가사를 쓴다.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찾기 힘쓰는데/우리들은 무얼할까 의병들을 도와주세 (중략) 의병들이 오시거든 안옥하게 만져주세”.

올해의 답사영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선의용대원이었던 이화림 지사에 대한 기록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겪은 고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김학철은 이화림을 ‘미세스리’라고 불렀는데 이화림이 매우 못마땅해하자 말을 바꿔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그런데 더욱 싫은 기색을 하여 ‘누님’으로 고쳐 불렀다. 그러자 이화림은 이렇게 친절하게 정정해 주었다고 한다. “이봐요 젊은이, 이제부터 날 부를 때 화림 동무라고 불러요.”

이화림지사를 초면에 미세스 리라고 불렀던 김학철은 이런 기록도 또한 남겼다. “이화림의 타고난 결함은 여자다운 데가 없는 것이었다. 아무리 군복을 입었더라도 여자는 여자다운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여된 까닭에 그녀는 남성 동지들의 호감을 통 사지 못했다 ... 적군의 ‘토벌’에 대해 부대를 재편성할 때, 아무도 여성인 이화림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화림은 개밥에 도토리 모양이 되었다”(이상 같은 책 pp. 124-126)

차별적 시각은 묻어나나 김학철지사의 기록 덕분에 오히려 이화림지사의 비범함이 강조되니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또한 이 기록은 수많은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도 비슷한 종류의 고

충을 겪었다고 짐작하게 해 준다.

독립운동가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하고, 현대의 기준으로 남성 쪽에서 여성에게 가한 성차별을 비난하는 건 투박하고 무분별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 독립운동가가 부차적 도움만 줬다거나 심지어 독립운동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머물렀다고 바라보는 인식도 그냥 넘겨선 안 되겠다.

출산과 양육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것치고는 어느 시기에나 폄훼되어 왔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출산과 양육, 교육은 독립운동군예비군 양성이자 독립운동의 기반이기도 했는데, 그런 사실은 그때에도, 지금도 잊혀 버린 듯하다.

출산과 양육의 막중함 외에도, 심지어는 한 여성이 남성들과 비슷한 방식의 무장투쟁에 가담하려 해도 그 시도는 좌절되기가 더 쉬웠다. 부드러움의 강요, 성적인 위계, 주변의 만류라는 제약은 연속되는 현대의 분위기로 어렵지 않게 짐작되지만 사료 차원에서도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러한 굴레를 고려하지 않고 여성 독립운동가가 수행한 역할이 사적 영역과 경계가 다소 모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이 받은 목숨의 위협이 덜 직접적이었다는 이유로 저평가되는 분위기는 어서 개선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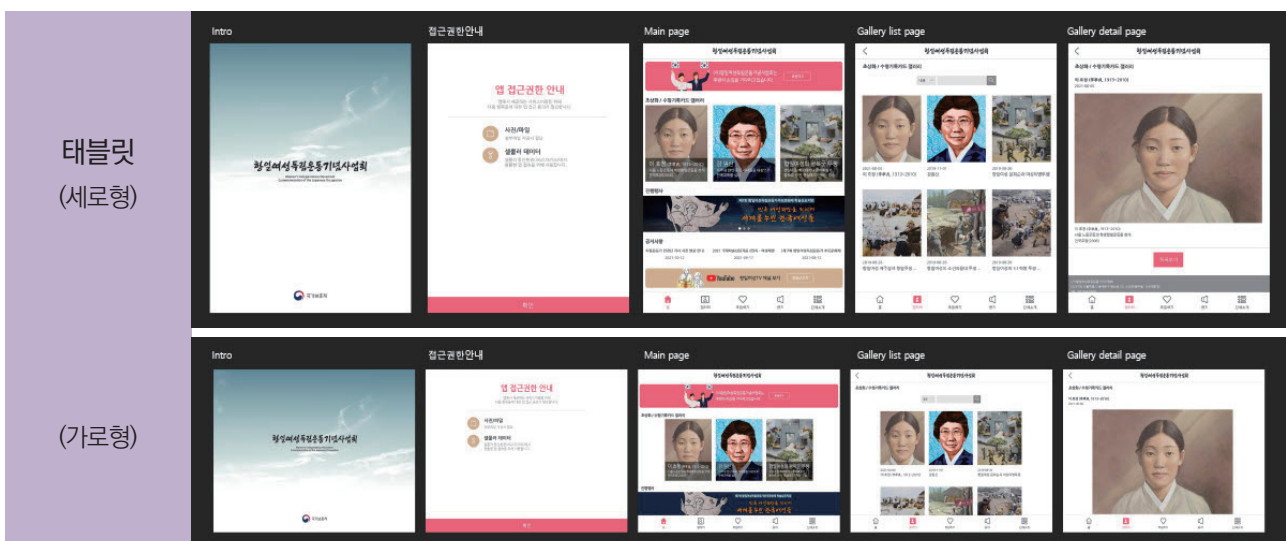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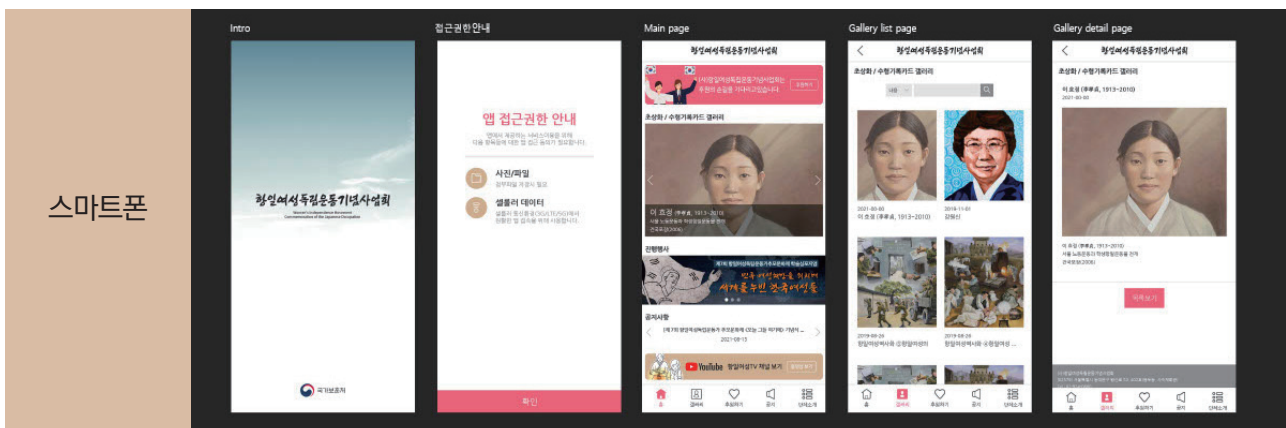
여성 독립지사들을 접하며 희생과 숭고함의 이미지가 선명해지며 소설 쓰기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다. 또한 더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를 복원하고 인정하며 기억하려는 노력이 현대의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며 능력이 닿는 한 동참하려고 한다. 항일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전용 앱

스마트폰에서도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를 편하게!

2022년 1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전용 앱이 배포되었습니다. 그간 본회 홈페이지는 모바일 버전이 따로 없어서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접속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용 어플 제작을 추진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와 연결을 도모하려 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버전을 각각 따로 개발하여 태블릿에서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1차 개발은 초상화 갤러리 중심이며,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온라인 전시의 성격을 겸하고 있습니다. 차후 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항일여성'으로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앱 개발을 지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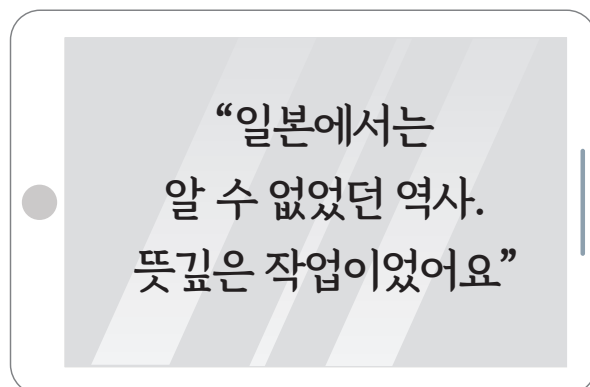
이 유 아(앱 개발 지원)

안녕하세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연이 닿아 며칠 동안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앱에 초상화 갤러리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했던 이유아입니다. 잠시였지만 이 일을 하게 되어 기쁘고 보람 있었습니 다. 남성 독립운동가 뒤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의 초상화와 정보를 정리하는 일이라니 너무 멋진 일입니 다. 일본인인 아버지와 한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뜻이 깊네요.

요즘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차츰 인터넷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포함해 제대로 역사를 알고 충격 받음과 동 시에 이러한 역사는 인정하고 알리며 사과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일본에서만 지낼 때에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일본에서 그런 역사는 아예 없던 일 이었기에 한국에 와서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뒤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전도사님의 “우리나라랑 사이 안 좋은 나라 있죠?”라는 질문에 속으로 “북한!”이라 대답했는데 모두가 “일본이요!”라 대답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한국과 일본 간 사이가 어떤지 묻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단체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가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 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이 역사에 대한 정보를 알 길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을 위해 공훈록을 읽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이 좋았어요. 멋진 일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북 출신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2021 이북도민회 6.25 추모제’ 파주 동화경모공원에서

2021년 6월 25일(금)부터 6월 27일(일)까지 3일간 파주의 동화경모공원에서 이북 출신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 50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2021 이북도민 6.25 추모제’의 일환으로 본회와 이북도민회의 공동기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회 김희선 이사장은 6월 25일 추모제 개최식에 함께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사말을 대독하며 이북 출신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6월 25일 이북 출신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 오픈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 전경



전시회 준비 중인 본회 김희선 이사장과
이북도민회 서용덕 사무총장



전시회장을 찾은 본회 김희선 이사장, 신영숙 소장,
이북도민회 서용덕 사무총장

2022 국회아트갤러리 3·1 혁명 기념 작품전

2022년 3월 2일~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ART GALLERY 3월 상반기 작품전 2022. 3. 2. - 3. 15.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전시물 <오광삼 지사 초상화> 등 20점
- 작가 청상선 외 14인
- 문의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 02-6788-4394

청상선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02-924-0660

올해 3.1혁명 102주년과 3.8국제여성의날 114주년을 맞이하여 3월 2일(화)부터 15일(수)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전'을 열었습니다.

국회아트갤러리 3월 상반기 작품전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으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열단에서 활동한 박차정,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사이토 총독 암살을 시도한 남자현 지사까지 여성독립운동가 20명의 초상화를 전시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초상화 공모전 의 수상작들도 이번 전시에 함께 했습니다.

2014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 초상화전은 서대문형무소, 서울역, 광주시청, 울산박물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장소는 물론, 뉴욕과 워싱턴D.C. 등 국외에서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독립유공자 발굴 및 공훈 정책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열어가겠습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소감문

초상화 앞에서 들려오는 그날의 함성

임 정 희(본회 이사)



아직은 쌀쌀하지만 바람에 봄기운이 도는 삼월 초, 백여 년 전 만세 운동을 준비하던 분들이 만난 그날의 공기도 딱 이리했겠지요. 지금은 추위도 희망의 봄이 곧 찾아오리라고 기대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올해 삼월, 3.1 항일민족정신을 기념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20인의 초상화 전시회에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창립 때부터 후원회원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우리 단체의 활동을 지켜보아 왔지만, 전시 준비 과정부터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

다. 오랫동안 단체를 지켜온 신영숙 연구소장님과 사무국이 전시를 위해 힘쓰는 과정을 보며 조심스레 의견을 더 하고 일손을 도왔습니다. 3월 2일 전시회 첫날 아침,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 서서 신영숙 소장님과 문보미 사무국장과 함께 설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흰 벽에 초상화들이 하나씩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준비되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미 보았던 그림들이지만 갤러리에서 보니 또 다른 힘이 느껴졌습니다. 엄격한 결기와 의지에 찬 표정도 있고, 미소가 부드러운 표정도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화풍으로 그려진 다양한 얼굴들의 공통점은 형형히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조명을 받자 더 힘차게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이틀 뒤 금요일에는 여고 동문들 3인과 함께, 그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학 후배 2인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발걸음을 할수록 감회가 짙어졌습니다. 리플릿에 소개된 간단한 약력과 함께 순서대로 묵념하듯 초상화를 대할 때면, 강렬하고 드높은 그분들의 정신이 살아 돌아오는 느낌처럼 전율이 와 닿았고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귓전에 들려 왔습니다.

동행들이 참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할 때, 리플릿의 글과 초상화의 얼굴들을 번갈아 보면서 '이 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감탄할 때,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 가는 기념사업회에서 이사로 섬기게 된 것이 새삼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사업회의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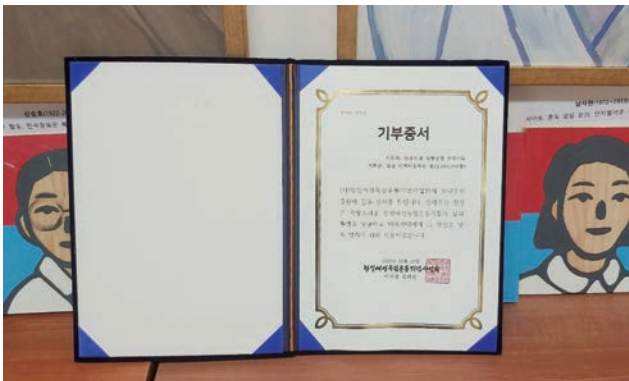
이번 세 번의 관람을 통해 초상화 전시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처음 초상화 전시를 기획하고 8년 동안 우리 단체를 위해 헌신해오신 김희선 이사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오늘을 만들기 위해 앞서 가신 분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정신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시위 30주년 참가



2022년 1월 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 30주년에 본회 이사진과 사무국도 함께 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보수단체가 소녀상 옆자리를 선점하고 있는데, 이날도 수요시위는 보수단체의 훼방으로 인해 평화의 소녀상에서 50m 가량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김연경 여성 팬 모임 '식빵공장 반죽이들', 본회에 후원금 226만 원 전달



2월 21일 다음카페 김연경 여성 팬 모임 '식빵공장 반죽이들'로부터 김연경 선수 생일 2월 26일과 다가오는 삼일절을 맞아 후원금 226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반죽이들' 대리인은 "선수의 생일을 맞아 팬들이 정성을 모으며 기부할 곳을 찾던 중, 우리 여성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써 준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는 단체에 기부한다면 뜻깊은 일이 되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보내신 의미를 기억하고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미래세대에 알리기 위한 교육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21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서훈 추서자

2021년 3월 1일 추서자 33명 / 2021년 8월 15일 추서자 18명 / 2021년 총 추서자: 51명

순번	성명	한자명	생물년	운동계열	포상훈격	생존여부	본적	순번	성명	한자명	생물년	운동계열	포상훈격	생존여부	본적
1	곽영옥	郭永玉	1910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북도 김제	37	윤죽산	尹竹山	1865 ~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2	김귀임	金貴任	1911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대구	38	이경선	李景仙	1914 ~ 미상	국내항일	애족장	미상	제주도 제주
3	김금록	金錦錄	1912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강릉	39	이기숙	李起淑	1913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서울
4	김노디	金諾迪	1898 ~ 1972	미주방면	애국장	사망	황해도 곡산	40	이만훈	李晩勳	1906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서울
5	김병일	金秉一	1905 ~ 1971	중국방면	애족장	사망	평안남도 영원	41	이명지	李明智	1912 ~ 2007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완도
6	김봉개	金鳳凱	1911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서울	42	이송자	李松子	1914 ~ 1979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목포
7	김성애	金聖愛	1907 ~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안동	43	이영옥	李英玉	1901 ~ 1991	미주방면	건국포장	사망	경상남도 함안
8	김용인	金用仁	1902 ~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강서	44	이영자	李英子	1912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 은율
9	김은주	金恩周	1905 ~ 1994	중국방면	건국포장	사망	평안남도 평양	45	이옥진	李玉眞	1908~미상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 고양
10	김정성	金貞聖	1886~1944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사망	평안남도 평양	46	이 정	李正	1914 ~ 1991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순천
11	김필례	金弼禮	1892 ~ 1983	국내항일	건국포장	사망	황해도 장연	47	이정순	李正淳	1911~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북도 옥구
12	나순덕	羅順德	1914 ~ 1934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나주	48	이정임	李貞任	1913 ~ 2004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강진
13	남상호	南相好	1890 ~ 1936	3.1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충청남도 천안	49	이정현	李貞賢	1909~1990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사망	충청남도 아산
14	노대근	盧大根	1875 ~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안주	50	임복희	林福姬	1914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북도 의주
15	노원호	盧元孝	1895 ~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강서	51	임배세	林培世	1897~1999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사망	강원도 원주
16	단양이씨	丹陽李氏	1874 ~ 1908	의병	애국장	사망	미상	52	전그레이스	全그레이스	1882~1948	미주방면	애족장	사망	미상
17	민연순	閔年順	1911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서울	53	전순옥	田順玉	1913 ~ 20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담양
18	박두옥	朴斗玉	1913~1986	국내항일	애족장	사망	전라북도 임실	54	정순희	鄭順姬	1891 ~ 미상	국내항일	건국포장	미상	함경북도 경성
19	박순복	朴順福	1888 ~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남도 진주	55	정학수	鄭鶴壽	1901 ~ 미상	노령방면	건국포장	미상	함경남도 함흥
20	박신일	朴信一	미상~1968	중국방면	대통령표창	사망	평안남도 강서	56	조정애	曹貞愛	1916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영광
21	박영옥	朴英玉	1898~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강진	57	주보배	朱寶培	1908 ~ 1932	국내항일	애족장	사망	강원도 회양
22	박정경	박정경	1896~1963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사망	미상	58	지경희	池璟禧	1911~미상	임시정부	애족장	미상	함경북도 미상
23	박정인	朴貞仁	1912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함경북도 부령	59	지성덕	池成德	1914 ~ 200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광주
24	박치은	朴致恩	1880~미상	국내항일	애족장	미상	평안남도 강서	60	채계복	蔡啓福	1900 ~ 미상	노령방면	애족장	미상	함경남도 문천
25	박혜경	朴惠敬	1899~1947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나주	61	최경창	崔慶昌	1918~미상	국내항일	애족장	미상	경기도 수원
26	서귀덕	徐貴德	1913~1969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담양	62	최능인	崔能仁	1903 ~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강서
27	설정순	薛貞順	1916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광주	63	최봉원	崔鳳元	1899 ~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강서
28	신경애	申敬愛	미상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64	최 심	崔心	1914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광주
29	신성녀	申姓女	1853 ~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충청남도 천안	65	최이선	崔二善	1912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30	신옥봉	申玉鳳	1914 ~ 1935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고흥	66	최풍오	崔豊五	1913~200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완도
31	신윤선	辛潤善	1911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원주	67	하상기	何尙祺	1921~미상	독립운동지원	건국포장	미상	외국 중국
32	안신덕	安信德	1892 ~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안주	68	한수자	韓壽子	1903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양구
33	안옥희	安玉熙	1916 ~ 미상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 수원	69	한태은	韓泰恩	1920~2006	광복군	애족장	사망	경상북도 대구
34	안정송	安貞松	1895 ~ 미상	미주방면	애족장	미상	평안남도 평양	70	현덕신	玄德信	1896~1962	국내항일	건국포장	사망	경기도 수원
35	양원숙	楊元淑	1911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함경남도 정평	71	홍종례	洪鍾禮	1919~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 수원
36	윤신민	尹信民	1901 ~ 미상	중국방면	애족장	미상	황해도 봉산								

2022년 3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서훈 추서자

2022년 3월 1일 추서자: 23명 / 2022년 3월 1일 기준 여성독립유공자 총 567명

순번	성명	한자명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훈격	생존여부	본적
1	강묘례	姜卯禮	1914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광주
2	곽명숙	곽명숙	미상 ~ 1961	미주방면	건국포장	사망	경상남도 미상
3	국귀선	鞠貴善	1913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담양
4	김건옥	金鍵玉	1925 ~ 미상	광복군	애족장	미상	미상
5	김공도	金公道	1897 ~ 미상	미주방면	건국포장	미상	경상남도 마산
6	김복순	미상	미상	미주방면	건국포장	미상	미상
7	김차순	김차순	미상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8	나성순	羅性順	1912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나주
9	노간란	盧干蘭	1912 ~ 199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광주
10	데이지 호킹	Daisy Hocking	1888 ~ 1971	독립운동지원	건국포장	사망	외국 호주
11	마가렛 데이비스	Margaret Davies	1887 ~ 1963	독립운동지원	애족장	사망	외국 호주
12	박보광	박보광	1886 ~ 1955	미주방면	건국포장	사망	미상
13	박봉매	朴鳳梅	1915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해남
14	박봉순	朴奉旬	1914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광주
15	박찬묘	朴贊妙	1912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북도 금산
16	안미생	安美生	1915 ~ 2008	임시정부	건국포장	사망	황해도 신천
17	안임순	安壬順	1912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함경남도 함주
18	윤보민	尹寶民	1900 ~ 미상	중국방면	건국포장	미상	황해도 봉산
19	윤창배	尹昌培	1899 ~ 미상	미주방면	건국포장	미상	경상남도 부산
20	이보비	李寶毗	1912 ~ 미상	광복군	애족장	미상	미상
21	이사벨라 멘시스	Isabella Menzies	1856 ~ 1935	독립운동지원	건국포장	사망	외국 호주
22	이심동	李深洞	1889 ~ 1964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사망	경상북도 청도
23	이옥금	李玉今	1913 ~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함평

2022년도 사업 계획



기념 사업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오늘 그들 여기에〉

- 2022문화예술공모전(6월~8월)
- 815기념식 및 시상식(8월 15일)
- 항일여성독립운동 유적지 답사(8월 말~9월)
- 초상화 및 수형기록카드 전시(수시)

항일여성상 건립

- 소은숙·소은명 자매 동상 건립(경기도 연천)

연구· 교육

학술심포지엄

- 국내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성격과 업적 - 지역별 비교 고찰
(9월 말~10월초)

기획강좌 및 강의(7월~8월)

출판· 홍보

학술심포지엄 자료집을 기초로 한 문헌 발간(10월~12월)

이사장 회고록 발간

유튜브채널 항일여성TV 운영

본회 전용 앱 추가개발 및 홍보

조직 관리

임원 및 회원 확대 / 회원 관리 강화

운영회의·이사회·총회 등 회의 정례화

전국지부 확대

• 강원지회 발족 (예정)

윤희순 지사를 중심으로 역사살리기 운동에 매진해왔던 윤희순기념사업회가 본회 강원지회로 함께할 뜻을 밝혔습니다. 2019년 3월 발족한 광주 전남지회와 함께 지역 현장에서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회의 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는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개 인 ♡

강성종 강영준 강예진 강정숙 강정홍 고수민 고희주 광미경 광보미 광유진 광주현 권리나 권오영 권태순 김가현 김경미 김경순 김경옥 김광준
김귀례 김명주 김미성 김병국 김병수 김보영 김복순 김삼열 김삼웅 김서경 김선현 김성태 김성훈 김수미 김숙정 김순단 김애영 김연옥 김영섭
김영숙 김영희 김옥미 김옥순 김옥이 김용진 김우진 김운채 김윤경 김윤숙 김일옥 김종도 김종진 김지희 김진현 김진후 김찬수 김창한 김태관
김하영 김행자 김행자 김현숙 김현지 김현태 김형목 김혜라 김혜련 김혜정 김혜지 김호근 김희선 나영우 나유진 남궁련 남상만 남성현 남하윤
노다니엘 노명희 노영숙 노우숙 노은미 도승이 류효안 마완근 마혜민 맹준재 명 진 문병호 문은영 문인숙 문인철 민향선 박가은 박경철 박국호
박금란 박나영 박남식 박마리 박민수 박민지 박삼규 박선우영 박성현 박소리 박소연 박소울 박수민 박승준 박영순 박운학 박원홍 박유림 박윤옥
박은희 박재홍 박정아 박정철 박정희 박제성 박주영 박준영 박진호 박창식 박태균 박하은 박해숙 박현지 박혜진 박호현 박효은 방국진 방승환
방지영 배다빈 배성호 배우진 백소망 백정애 서병남 서쌍원 서영고 서인아 서찬희 서하민 설 훈 성세정 성현진 손덕수 손민성 손수연 손 윤
손태수 손희영 송보경 송아람 송주은 송현석 수산나 신경호 신명희 신상균 신수정 신영숙 신유진 신은영 신재남 신재민 신종근 신혜수 심소라
심용식 안광진 안기현 안성례 안재준 안해영 안혁하 안희정 양동해 양미강 양시영 양혜경 양호준 오건호 오경민 오나경 오세훈 오수민 오여주
오화자 오화중 유승희 유인경 유창우 유하영 윤인지 윤현식 이경순 이구영 이규원 이기은 이길용 이문석 이미경 이미희 이민석 이민재 이민주
이보나 이상혁 이선주 이성구 이성철 이소라 이수민 이승현 이승환 이연수 이영훈 이원표 이윤희 이은경 이은주 이일영 이재희 이정기 이정숙
이정원 이정은 이정환 이주한 이지원 이진규 이진석 이진숙 이찬희 이창민 이창원 이항중 이현민 이현주 이혜경 이효식 임동건 임수빈 임순덕
임쌍금 임연선 임은순 임정희 임주희 임현영 장경호 장병화 장수인 장해연 장현호 전경미 전진우 전형진 정건하 정나영 정동익 정민우 정보영
정범철 정성아 정수진 정연진 정영호 정용설 정원빈 정원태 정유경 정택수 정현주 정희영 조수민 조신호 조윤서 조은비 조정식 조희숙 지우현
진숙희 차영조 차우수 차종찬 천신애 천정배 최광호 최병일 최선량 최성자 최성주 최순례 최영환 최우영 최윤정 최은규 최재호 최정순 최준영
최진섭 최현철 최희라 탁은지 한건희 한의성 함 진 현명우 홍미영 홍윤기 홍정석 홍충선 황기흠 황수환 황은혜 황인술 황정원 황학수
HARLFINGER OKPUN

♡ 단체 / 기업 회원 ♡

광복회 김예진목사기념회 김학규오광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요가 스포츠연맹
대한요가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월혁명회 서울시요가연합회 여천 홍범도장군기념
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인쇄출판새롬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 (주)에너지파트너 지광회 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한국여성성전화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 헤림교회 화윤차문화협동조합

회원님들이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본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셨다면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230-6110-11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	도	위	원	김삼웅 이덕일 임옥상 임현영 장유식 정동익
이		사	장	김희선
이			사	강정숙 권태순 김애영 김혜련 노명희 도승이 박정희 신영숙 유승희 이연수 이은주 임정희(상임이사) 임주희 최성자
감			사	이승환
사		무	국	문보미 임성윤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 신영숙
도 서 출 판 항 일 여 성				대표 : 신영숙
광 주 전 남 지 회				회장 : 명진 / 부회장 : 박태균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회원분들의 정성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 회원가입서로 연결됩니다.



• 전 화 02-924-0660

• 유 투 브 youtube.com/c/항일여성TV

• 이 메 일 herstory@herstorykorea.org

• 홈페이지 <http://www.herstorykorea.org>

* 본회 홈페이지에서 〈항일여성〉 과월호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